



# 네팔 선교 이야기

## 2019년 7~8월 소식지

### 네팔선교 동역자(Coworker)님께

네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낸지 4년만에 건강검진과 두 딸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건강 검진과 치과, 안과치료를 받고, 동역자님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고 부모님 산소도 찾아 뵙고  
 짧은 일정을 보내고 사역지 네팔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격려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달간의 짧은 일정으로 뵙지 못하고 연락 드리지 못하고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곳 네팔은 아직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도해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역자님의 기도와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네팔선교 동역자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 ■ 네팔 선교사 재충전 위로회(8월 12~14)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네팔 한인선교사회 재충전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전도금지법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다시금 영혼사랑의 열정이 회복  
 되고, 많은 위로와 격려와 재충전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간식,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이들 케어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인.예.음(복음)앞에 다시 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님과 박희정 목  
 사님의 찬양에 은혜가 넘쳤고, 마지막 날 땅 밟기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 헤먼떠 결혼식

네팔에 와서 처음 만난 아이, 저희 고아원 첫 번째 아이 헤먼떠가 어느덧 장성해서 대학졸업하고 신  
 학대학원 졸업하고, 저희가 처음 개척한 석띠쌀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 중에 침례교 신학교 졸업한 자  
 매를 만나 8월 18일 결혼을 하였습니다. 16년 동안 키워왔고 잘 자라주어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  
 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 ■ Business as Mission (BAM) 아카데미

네팔 혹은 선교지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네팔도 학생비자로 3년, 그 이후로는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5월달부터 네팔 비즈니스 투자비가 그 동안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되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프 리 박사님과 손원민 교수님께서 오셔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Business as Mission (BAM) 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 지금 바로 3 분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세 자녀들(하예, 하선, 하민)을 위해
2.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파송교회가 생기도록
3. 네팔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교회와 동역자 가정**을 위해
4. 함께 사역하고 있는 네팔 현지 사역자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5. 네팔 교회 지원사역(**염소분양, 성찬기 보급,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6. 네팔 교회들에 십자가가 없는데 **네온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7. 네팔 한인선교사회 회장직을 1년 동안 잘 감당하도록
8. 네팔 동쪽에 있는 우버써나 침례교회가 찬미 커뮤니티를 통해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이 잘 되도록
9. 신학교 부지를 구입했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후원 안내 : 예금주 : 침례교 해외선교회 (전훈재) 해외선교회 재정부 전화 02-3775-4471  
 목적 계좌 : 990-007954-330 (KEB 하나은행) : 고아원 및 교회 건축, 염소분양, 성찬기보급, 목회자자녀장학금  
 일반 계좌 : 181-04-01157-305 (KEB 하나은행) : 생활비 후원 계좌

네팔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 +977-98189-54346 , 인터넷 전화번호 : 070-8249-4891 (한국전화)

네팔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실 동역자(기도, 물질후원)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2019년 7~8월 전훈재, 유연화 (하예, 하선, 하민) 가족 올림